

# 군공항 부지 1.4배 넓게 건설

# 복합도시·항공·물류 허브로

### ●소음 대책·지원 방안

#### 소음완충지역 부지 3.6km<sup>2</sup>·추가완충 5.7km<sup>2</sup> 확대 밤 10시-오전 8시 비행 제한...지역개발 1조 지원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지역의 군공항 부지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 광주 군공항보다 1.4배 넓게 건설되고 소음완충지역도 확대된다.

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은 24일 초당대학교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소음 대책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 소음 대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소음 영향 저감을 위해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8.2km<sup>2</sup>/248만평)보다 1.4배 넓게 건설(11.7km<sup>2</sup>/353만평)하고 소음완충 지역도 기존 소음완충지역부지 3.6km<sup>2</sup>(10만평) 외에 추가완충지역 5.7km<sup>2</sup>(170만평)을 설정했다.

또 광주 군공항 기준을 적용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0시간 비행을 제한한다. 민항기 비행제한 시간은 없다.

민간·군공항 통합공항의 해안 입지로 광주 군공항 기준 소음영향권은 4021km<sup>2</sup>인데 반해 통합공항 소음영향권은 19km<sup>2</sup>로 축소되고 21.21km<sup>2</sup>는 공유수면이어서 소음 영향은 무안군 전체 면적의 약 4.2% 수준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토지 보상 면적은 군부대(11.7km<sup>2</sup>/353만평), 소음완충지역(3.6km<sup>2</sup>/110만평) 등 15.3km<sup>2</sup>로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7.2km<sup>2</sup>, 제2종 구역(90-95웨클) 4.6km<sup>2</sup>, 제3종 구역(85-90웨클) 3.5km<sup>2</sup>다.

지원 사업 규모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1.5배에 달하는 4천508억원이다. ▲생활기반시설 설치(마을 진입도로 정비, 농로·하천, 수리시설,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복지시설 확충(노인 복지건강타운, 복합문화복지센터, 보

건의료시설) ▲소득 증대(태양광 발전단지, 친환경 이주 축산단지, 스마트팜단지) ▲지역 개발(지역 관광 명소화, 전통시장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단지) 등에 사용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지역업체 계약 우대 ▲지역주민 우선 고용·참여를 지원한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과 사업비 국가 부담 ▲이전사업비 용자 ▲이전지역 지원(별도 지원사업 추진)한다.

광주시 차원에선 ▲지역개발사업 지원금 1조원 지원(기존 지원사업비 4천508억원+α) ▲지역 맞춤형 사업(햇빛연금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국제학교 등) 지원 ▲대구시 수준의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지급(이주 정착 세대 당 2천만원, 생활안정금 1인당 250만원) ▲가족 기능을 갖춘 복합 배후도시 조성(이주단지, 정주시설, 특화산업클러스터 등) ▲농수축산물 전용판매장 설치를 돕는다. /박성경기자

### ●이전 주변지역 발전 구상

#### 총 3조76억 규모 무안공항 연계 21개 세부사업 동·서부 시너지효과...전남 중부내륙고속도로

공항복합도시 조성,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등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시 지역 발전 구상이 제시됐다.

신동훈 전남연구원 환경연구실장은 24일 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시 주변지역 발전 구상'을 통해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지역 발전 방향으로 구상 중인 6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3조76억원 규모로 국비 1조983억원, 도비 8천409억원, 군비 5천839억원, 민자 5천601억원 등이다.

6개 분야는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 ▲에너지·반도체·데이터 등 첨단 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 조성 ▲육·해·공 빈틈없는 광

역 SOC 확충 ▲어디서나 살기 좋은 전남 1번 도시 무안 건설 등이다.

대표 사업으로 무안군 및 주변 지자체의 산업·경제권을 연계하는 물류 환경 구축을 통한 서남권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이 제시됐다. 구체적 방안은 ▲항공·철도·도로 등과 연계한 통합 네트워크 물류단지 조성 ▲IT 접목 공동 물류센터 설립 물류비 절감·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OMS(주문관리시스템), WMS(창고관리시스템), TMS(운송관리시스템) 등 연계 구성을 통한 물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다.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조성 구상도 나왔다. 무안국제공항 일원 140만㎡에 총 1천810억원을 투입,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 정비의 국내 점유율 확대와 물류 산업까지 연계한 첨단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하고 무안국제공항, KTX 무안공항역 등을 기반으로 한 항공정비산업 기능 위주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이 밖에도 국비 294억원, 지방비 126억원 등 사업비 총 420억원이 투입되는 '최첨단 화합물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안'과 무안군 일원 330ha에 1조3천463억원(국비 45%, 지방비 42%, 민자 13%)을 투입해 AI, 빅데이터 활용한 첨단농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남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도 제안했다. 함평 JC부터 순천 IC까지 총 120km 구간 사업비 5조7천700억원을 들여 무안국제공항, 나주 혁신도시, 순천·광양 등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4차로 직선도로망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동부·중부·서부권 시너지 효과는 물론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균형발전 동력도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시원기자

## “무안군민 공론화장 필요”

### ●패널토론·질의응답

#### 통합공항 당위성·소음 평가 기준 제시를 기능·경제성 등 육성 방향에 초점 맞춰야

24일 오후 초당대학교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소음 대책 토론회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에선 통합공항의 당위성과 소음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장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제철 전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교수는 “통합 이전이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시·도민과 무안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통합공항 이전 당위성을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서 찾기보다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또 경제성을 갖춘 공항이 될 수 있을지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공항 통합 이후 육성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 대표 이사는 “오늘 제시된 배치안을 놓고 보면 민간공항과 군공항 활주로가 충분히 이격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군공항이 들어올 경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석재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군공항 이전 시 소음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전 지역에 대해 방음장, 냉난방 시설, 청력검사 등 세밀한 지원과 설치·개발 이후 유지·관리·보수 내용이 추가돼야 다른 공항에서 발생했던 한계점이 보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무안군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애리기자

박영환 나노빅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소음 기준이 다르지만 현재까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지원을 위해선 각각 평가할지, 아니면 통합 평가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소음 평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나주몽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무안군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군공항이 올 경우 인구 성장에 의해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확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무안군민을 대

상으로 한 공론화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무안읍에 거주하는 정성욱씨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으로 인한 감정적 골이 큰 것이 이유”라며 “이날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거주자들이 토론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

다”고 지적했다.

운남면에 거주하는 이덕한씨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과 무안군의 무작정 반대 모두 비판한다”며 “무안군은 반대만 내걸 게 아니라 토론회에 참석해 찬반 토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시원기자

**Sh수협**  
정직한 수산식품

## 별海별味 양갱 선물세트

별海별味 양갱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 속, 우리 바다의 건강한 맛을 양갱에 담았습니다.

www.shshopping.co.kr  
수협쇼핑과 sh수협마트에서 구매하세요

연출사진입니다.

[5개입 세트(4종)]

- 해삼·홍삼 양갱 45g x 5개
- 감태·감귤 양갱 45g x 5개
- 다시마·말차 양갱 45g x 5개
- 함초·흑임자 양갱 45g x 5개

[18개입 선물세트] 45g x 18개입 (810g / 2,400 kcal)

[16개입 선물세트] 45g x 16개입 (720g / 2,200 kcal)

[12개입 선물세트] 45g x 12개입 (540g / 1,600 kcal)

준법감시심의필-제B240054호(2024.03.27)